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탄 감사 메시지

## Merry Christmas



이중윤 목사(서울교회담임)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5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흘리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2006년 12월 24일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بل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 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교회는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 1. 12월24일(주일)

**성탄 전야 행사-24일(주일) 찬양예배 시, 어린이들을 위해산타할아버지가 오신다**

오늘은 성탄전야 행사로 찬양예배 시간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교육1국 교회학교(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와 사랑부, 아멘 관현악단(2군)에서 다양한 성탄 찬양과 율동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특히 지체 장애우들의 모임인 사랑부에서 오랫동안 연습한 핸드벨로 예수님을 찬양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와 '천사들의 노래가' 두 곡을 핸드벨 연주로 성도들에게 처음 선보인다.

## 2. 12월25일(월, 성탄절)

**새벽송-성탄절 새벽, 신청 가정에 성탄절 새벽예배-오전 5시, 본당에서 성탄 감사예배-1부: 25일(성탄절) 오전 9시 본당 2부: 25일(성탄절) 오전 11시 본당**

**성탄저녁 가정예배-가정에서, 순례자 3면 참조**  
25일(월) 성탄절 새벽에는 신청 받은 가정을 방문하여 찬양을 부르며 첫 성탄 때의 목자들(목자)과 같이 주님 나신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린다.

성탄절 아침, 날이 밝으면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 주님 나심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예배를 오전 9시와 11시 두 번 드린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절 저녁 가정예배를 드린다.

우리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크리스마스를 이웃과 함께

##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온차(溫茶) 나누기- 특별헌금 드려

우리교회는 이번 성탄절 헌금을 사랑의 연탄을 나누기 운동 본부와 혹은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국군장병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위한 사랑의 온차(溫茶) 나누기 운동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형편이 시급하여 성탄절 전에 담임 이종운 목사와 구제위원장 왕경래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이 함께 지난 22일(금) 오후 4시 서울교회에서 총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본부에 2,000만원을, 한국 군선교 연합회의 비전 2020운동본부에 사랑의 온차(溫茶) 나누기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 성금을 전달받은 총회와 군선교연합회는 서울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귀중한 성탄 선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여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송년 음악의 밤

12월31일(주일) 밤 10시-11시 본당에서

우리교회 찬양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2006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송년 음악의 밤을 준비한다.

송년 음악의 밤은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기 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본당에서 열리며 초등부 찬양대의 찬양을 시작으로 헨시바 중창단, 우리교회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성악가들의 독창(박승혁, 류종기, 고성진 집

사), 스테반 중창단, 파이프오르간 연주, 아멘관현악단 연주, 그레이스핸드벨 콰이어 연주, 기타 독주 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2007 청지기 수련회

1월8일(월)-13일(토) 6일간

2007년 청지기 수련회가 2007년 1월8일(월)-13일(토)까지 6일간 본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박노철 목사(구리 지구촌 교회)가 강사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인도한다.

새벽기도회후 6시부터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장로, 권사, 집사 등 중직자와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등 모든 청지기들이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 목사 사모팀 Baby-sitting

베들레헴 홀 (403호)에서

2007년도 목회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목사 사모 Baby-sitting팀(팀장 최은실 사모)이 발족하여 수요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둔 부모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403호를 베들레헴홀로 명명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로 초빙

우리교회는 지휘자 순환제 실시와 음악감독직제 회복에 따라 공석이 된 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에 김정희 집사를 임명하였다.

김정희 집사 약력(1947년생)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 음악과 졸업
- 독일 Augsburg 국립음대 대학원 졸업
- 미국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조교수 역임
-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독창회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로 초청 연주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겸임교수

## 2007년도 100교회 후원현황

· 1구좌 (다음 주 계속)

- 김형상,최금숙 / 김해인,혜진,영서 / 나미용 / 노문환,장정화 / 노송성,이영옥 / 도르가전도회 / 모영배,이성숙 / 바울남선교회 / 박경정 / 박명철 / 방승희 / 배정자 / 베드로선교회 / 빌립선교회 / 새가족부 / 서상근,서법준 / 신용식,김신영 / 신종건,김희진 / 아브라함선교회 / 안분선 / 안홍희,전화진 / 양준경 / 엘리야선교회 / 오유식 / 오정수 / 오지열,하숙 /

(100교회 후원헌금 봉투는 2층 새가족 환영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성탄절 저녁 가정 예배순서

- 예배를 드리는 기도 . . . . . 어머니
- 신앙고백 . . . . . (사도신경) . . . . . 다함께
- 함께 부르는 찬송 . . . . . 113장 . . . . . 다함께
- 교독문 . . . . .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가족: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도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가족: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인도자: 오늘날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가족: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인도자: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가족: 이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입니다.

인도자: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족: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 감사기도 . . . . . 다함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래 전 말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함께 부르는 찬송 . . . . . 115장 . . . . . 다함께
- 구약말씀 . . . . . 사9:1-7 . . . . . 가족 중(어른)
- 신약말씀 . . . . . 막10:45 . . . . . 가족 중(어린이)

- 아빠가 읽어주는 성탄절 메시지 . . . . . 아버지
- 축하케익 . . . . . 다같이

(먼저 접화를 한 후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음 찬양을 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찬양 후 온 가족이 서로 안아주며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한다.)

- 주기도 . . . . . 다같이  
 (케익을 나누며 가족의 추억이나 성탄절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 아빠가 읽어주는 성탄절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낮은 자를 찾아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인간을 찾아오신 뜻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의 근본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낮은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죽은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하려고 오셨습니다. 강자를 위하여 약자들이 희생하는 세상 이치와는 달리 약한 자들을 위하여 강한 자들이 희생하는데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는 천사의 말씀을 음미하며 낮은 곳, 약한 자를 찾아서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는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냅시다. 임마누엘!



신교사님께 띄우는 성탄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네”

Merry Christmas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오랜만에 사귀는

이제 세계선교부흥회에 믿음이 확고한 기도 드립니다. 유해와 낙상, 추위에 인연과 영혼의 안락을 위하여

선교사님! 뭇가에서 전하는 불타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과 기쁨을

선교사님! 힘내세요. 기도의 후회자 전사회가 기도 드립니다

선교사님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 사랑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교사님들의 사랑 가운데 증언 하시길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전수김영숙

아기 예수로 오신 능력의 죽은 자들 위로 주시기를. 김광민 장모

성 축관 사랑해주고 주님의 은혜의 손이 강하게 불붙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영진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놀라워라!

##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 김한성 · 남영에 선교사(동아시아)

### 계속 관심과 사랑을

서울교회 가족들께  
평안하신지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직  
장 등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속에 올 한 해도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작으나마 열매도 있었고 또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서울교회가족들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관심은 저  
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  
다.  
내년에도 계속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조남예선교사(방글라데시)

### 기쁘고 감사한 성탄을 나누시기를...

살림!  
방글라데시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  
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방글라데시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 많지만 우리 소망 호텔 자녀들과 그 가정, 그  
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  
주시는 서울교회 목사님 성도님들과 이 기쁘고 감사  
한 성탄을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전광예선교사(서아시아)

### 사랑의 노래로 가득하길...

이름없는,  
아무도 눈여겨 주지 않는 마굿간에  
우리의 왕이 그렇게 올 수 있다니...  
우리 왕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자기에게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네요.  
그분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삶의 의미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이  
2007년 성탄에도 마음 속에 넘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사랑의 노래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Merry Christmas !!!  
from 서머나

■ 이황명 · 손혜신선교사(이스라엘)

###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내는 성탄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장신대 성지연구소에 머물면서 성탄  
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다는 것이 새삼스럽  
게 실감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성도님 가  
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황명, 손혜신, 이혜원, 이다비드 드림

■ 이재율 · 박병진선교사(캄보디아)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천년 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존경하는 위임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  
도님들께 주 안에서 성탄인사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우기가 끝나고, 25도 안팎의 제법 선선하지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오는 성탄절은 기대조차 할 수 없지만 온 거리  
에서 들려오는 케를송, 구세군의 자선 냄비와 종소  
리,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산타 복장들로 그래  
도 마음이 따뜻해짐은 예수님의 오심이 날씨와 인종  
에 상관없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었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  
한 이 땅에 상업적인 징글벨이 아닌 진정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울려 퍼질 성탄절을 소망합니  
다. 저희들은 캄보디아 군대가 하나님 군대로 거듭나  
서 인도차이나 반도가 여호와 닛시 깃발로 물결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2007년 사역 - 4개 부대  
의 영어캠프 개최, 2개 부대의 성경공부, 군 선교 비  
전이 있는 현지 지도자 양성, 동남아 주변국 군 선교  
협력 등 -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과 격려로 동역하는 서울교회와 땅 끝까  
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최전  
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울교회 여러 선교사들과 함  
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인도)

인도에서 신학교 사역과 목회자 재훈련 사역을 감  
당하고 있는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입니다. 예수님  
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  
는 위대한 사건이기에 인도의 어두운 영혼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취지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교수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인도 땅에 가득 차도록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조범연, 김희정 드림

# 우리 구주 나신 날 천사 찬송할 때에...



이양철 집사(11교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를 이루게 하시고 에바다부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을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저희 에바다부 가족들도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의 대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18기, 19기, 20기 전도학교에 입학하여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에서 배운 성경공부가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안 믿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부 가족들이 말씀을 배울 때 방법이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같은 형편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소명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식과 단절되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

라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바다부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 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에바다부가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에바다부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학교에 진학하는 일, 취업하는 일도 성령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올해 에바다부에서 세운 계획과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돌아보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에바다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금실 전도사(유아부 지도)

샬롬!

우리 유아부에서는 기쁜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성탄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아기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는 성극과 율동을

을 발표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들은 성극이 끝나면 아기천사가 되어 음악에 맞추어 무대에 나와 인사를 드립니다.

2부 순서로는 산타할아버지가 찾아와 부모님의 칭찬메시지를 전하며 선물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유아부실(706호)에서 마련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 가득한 사진촬영도 하구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도 자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싶은 내용과 선물을 유아부로 전달해 주세요.

또한 방문을 원하는 가정에는 찬양대와 산타할아버지가 함께 각 교구별로 방문할 예정이니 사랑을 나눌 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 김혜중집사(사랑부 교사)

2006년 12월 24일은 사랑부 핸드벨이 처음으로 연주 하는 날입니다. 시작 할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이 온 정성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며 아이들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핸드벨 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협동심이 싹트게 되었으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핸드벨 연주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

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체력이 약해서 처음에는 1시간의 연습시간도 힘들어 하며 선생님들의 애를 태웠으나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게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만은 비장애우를 능가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부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연습도 능력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의 사랑부 핸드벨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된 큰 힘은 사랑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

의 한 없는 사랑과 학부모님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 그리고 사랑부 선생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2006년 12월 24일 사랑부 핸드벨 팀이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께 드릴 때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미숙한 점이 많겠지만 아낌없는 사랑으로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쁘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첫 연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최규초 집사  
(전도위원회 간사)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전도위원회 간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엘리야 선교회 회장과 간사의 직임을 받고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시고자 부르셨으니 값 없이 주신 보화를 주님 모르는 이웃에게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몸 되신 서울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이를 이루시고 성취케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각 선교회 회원은 필히 동참하셔서 회원 간의 친교와 선교를 위한 협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교회와 성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 선교회가 주간전도, 식당봉사, 금요철야 찬양, 월례회, 농촌교회 지원 및 전도와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여 끌고 밀어주고 존귀하게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마지막 부탁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심을 기억하시어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새해를 준비합시다.

###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니”

2007년 일꾼에게 듣는다(11)

##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소서



남태순 권사(여전도회 간사)

우리 서울교회는 연령순으로 이루어진 도르가, 루디아, 뵤뵤, 마리아, 에스더, 한나, 사라의 7개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할 일 많은 서울 교회에서 에스더 여전도회장과 여전도회 간사의 중임을 맡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너무 안일하고 태평무사하게 믿음 생활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라오디

게아 교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뜨겁고 확신에 찬 믿음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서울교회의 목표인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에 더욱 힘쓰며 위임 목사님의 목회지침에 따라 민족교회를 향도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와 농어촌 100교회 후원, 세계 교회를 섬길 지도자를 양성하는 김치 세미나를 적극 후원하며 동참하겠습니다.

각 전도회를 통해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회원간

의 교제를 통해 친목과 결속을 다지며, 온 여전도회가 서울교회를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조적 여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07년 여전도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전제 여전도회 간사로 세우신 주님으로부터 훗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세기를 이끌어갈

### 창조적 여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상영 (대학부 회장)

'저는 부족합니다' 대학부 총회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정견발표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에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부족하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학부원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견발표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장이라는 직분에 족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면 그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총회를 준비하는 1주일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비로소 진정이 되고 부족하기만 하다고 느껴졌던 저의 마음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대학부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근각처에서 응원과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곁에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2년간 임원단을 하면서 대학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맘속에서 자라났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 대학부를 위해 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이 넘치는 사랑을 대학부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 자신은 잠시 버리고 대학부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학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회장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며, 제 능력으로 대학부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학부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시니!!' 내년 1년동안 대학부를 섬기다 보면 여러가지 시련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헤쳐 나가겠습니다. 내년 저희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학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대학부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2007년 신설부서 - 금요철야부

# 뜨겁게 뜨겁게...

지도 : 정수길 목사, 부장 : 조정식 장로

## 1. 운영목표

금요철야기도회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 개인과 가족은 물론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섬김의 일꾼들을 세우고 전교인이 합심하여 금요철야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조직

- ◇ 지도 : 정수길 목사(설교 · 기도회 인도)
- ◇ 부장 : 조정식 장로(행정 · 동원)
- ◇ 부감 : 손영호 집사(찬양 인도)
- ◇ 서기 : 김상태, 최금숙 집사(일지작성 · 연락 · 기도제목 파악)
- ◇ 반주 : 홍혜란(피아노)

## 3. 내용

- 시간 : 오후 9~11시(찬양 50분, 특순 5분, 설교 15분, 기도회 50분).

· 주력부대 : 기존의 남녀 선교회와 교육부서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구 다락방이 중심으로 참석함으로써 금요철야기도회에 전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회원, 스테반회, 권사회, 70인전도대, 교구간사, 대학부, 청년부 등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매주 주보에 금요철야기도회 주력부대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해당 주력부대가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체적인 도고 : 예컨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정 선교사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아울러, 개인이 공개할 수 있는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한다.

· 기도응답의 내용을 서로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

· 기도회 이후에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주력부대는 자체적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도록 한다 (104호).

· 특별심야기도회 : 연 2~3회 위임목사님, 또는 특별강사초청 기도회를 갖는다.

# 2007년도 비전2020운동 후원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사무국으로

‘내 작은 입술로 민족의 75%를 그리스도께로’라는 표어로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비전2020운동의 2007년도 후원 신청을 받는다.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 오늘 주보에 삼지로 후원신청서를 넣었다.

민족 복음화 실천운동이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한 애국애족운동인 비전2020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바란다.

비전2020운동은 1구좌 3,000원(월)으로 장병 1명을 세례 주는데 필요한 경비이다. 본인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본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6일(화) - 27일(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한국 총동문회를 소집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신학 심포지움을 갖는다.

■ 제14회 한국의 음악가상 수상자로 우리 교회 음악감독인 이영조 집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선정되었다.

■ 박준호 선생(1부 오르가니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4년)그라츠 국제오르간콩쿠르 1위 입상, 한국인으로는 최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교역자 전화변경: 한상은 목사 02) 449-9307

■ 주간 식당 봉사: 엘리야선교회(12월24일) 모세선교회(12월31일)

■ 금주의 식사 : 김중근 집사 · 최혜순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목사님 궁금해요

# 메리 크리스마스 vs 해피 홀리데이 Merry Christmas vs Happy Holiday

성탄절을 앞둔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성탄절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건넨다. 하지만, 종교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특정종교의 기념일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자들은 성탄절을 단지 ‘행복한 공휴일’ 쯤으로 여기며 인사말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꾸어 사용한다.

1998년 영국 버밍엄 시위원회가 크리스마스를 ‘윈터벌’(Winterval)로 바꾸자는 의견서를 시정부에 제출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논쟁이 이미 불을 붙인 바 있다. ‘윈터벌’은 겨울(winter)과 잔치(festival)를 합친 말이다. 성탄절을 ‘윈터벌’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나, 성탄절 인사를 ‘해피 홀리데이’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성탄절이 점점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이

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입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성탄절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뜻 깊은 절기이다. 그런데 성탄절을 ‘윈터벌’로 만들자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교인들마저도 성탄절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감상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크리스마스(Christmas)’를 X-mas 라고도 쓰는데, 이때 X는 영어의 X(엑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Xριστος)의 첫 글자 X(키)를 의미한다. 따라서 X-mas 역시 ‘엑스 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한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모든 사람에게 기쁜 성탄절이 되도록
2. 송구영신(送舊迎新) 목은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해를 소망 중에 맞는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3. 사학법 재개정되어 기독교 학교 선교권 회복도록

## ■ 교외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